

5 월 넷째 주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넷째 주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넷째 주 대표 기도문 모음을 통해 영적 성장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모든 성도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5월 넷째 주는 성령강림절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모든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넷째 주 대표 기도문 모음 (1) - 감사와 회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9)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을 품었던 순간들,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2025년 5월,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더욱 본질에 충실하며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넷째 주 대표 기도문 모음 (2) -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7)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저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구합니다. 2025년 5월의 끝자락에서, 저희 가정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디지털 환경과 왜곡된 가치관으로부터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이 입시와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고, 일상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과도한 기대나 비교하는 마음이 아닌,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최근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가족 해체 현상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넷째 주 대표 기도문 모음 (3) -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전능하신 하나님, 5월 넷째 주를 맞아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강림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성령의 새 바람이 한국 교회 위에 불어와 영적 부흥과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교회 출석률 감소와 비대면 예배 증가로 인한 공동체성 약화를 치유하여 주시고, 2025년 현재 직면한 교회의 세대 단절과 젊은 세대의 이탈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 관계의 평화적 진전과 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섬김의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넷째 주 대표 기도문 모음 (4) -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20)

거룩하신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제 영혼의 성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홀히 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 집중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제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5년 현재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우울, 번아웃 증후군 등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이 습관화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주옵소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와 SNS 중독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5월 넷째 주 대표 기도문 모음 (5) -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선교의 하나님, 5월 넷째 주를 맞이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열정과 담대함을 부어주소서.

특별히 2025년 현재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과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등 복음 전파가 어려운 국가들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갈등 상황 속에서도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디지털 선교의 새로운 기회를 통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온라인 예배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AI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선교적 목적으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일상 속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직장과 학교, 이웃 관계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선교적 비전을 품고 헌신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론: 5월 넷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5월 넷째 주 대표 기도문 모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끊임없이 새롭게 하며, 주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령강림절을 앞둔 이 시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5월 넷째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